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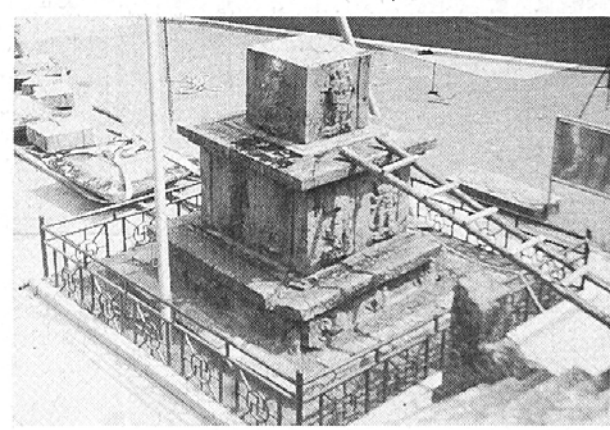
화엄사 석탑서

신라寫經 추정 종이뭉치 발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서쪽 5층탑(보물 제133호)에서 통일신라시대 종이에 쓴 화엄경 사경(寫經)으로 추정되는 종이 두루마리와 청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청자양이병(靑磁兩耳甁)이 발견됐다.

특히 종이 두루마리의 경우 제작시기와 사경 또는 인쇄본인지 아니면 시주자의 발원문인지의 여부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사경으로 확인될 경우 신라시대의 사회상과 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당시 종이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지난 66년 불국사 석가탑 보수공사 때 나온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일제시대 때 발견된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白紙墨書)대방광불화엄경 등 2종류에 불과하다.



이런 종이 두루마리 발견과 관련, 이 유물이 9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면 이 종이는 스님들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견장소가 화엄사이고 화엄사를 창건했던 연기조사가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발문에 사경의 동기와 종이 제작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단계에 널리 유행했던 사경은 4세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 한편 종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된 청자양이병도 청자발생설 규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불심시심 <28>

맑은 음악인 솔바람

Table with 2 columns: Song titles (e.g., 月波翻石壁, 楓葉送清音) and lyrics (e.g., 달의 물결 들 벽에 부딪히고, 솔바람 맑은 노래 보내네).

윗 시는 서산대사의 큰 제자의 한 사람인 소요당(逍遙堂1562~1649)의 시이다. 소요당의 법휘는 태능(太能)이고 속성은 담양씨이다. 대사는 선기(禪機)와 인정이 넘치는 시를 두루 잘 썼다. 속세의 거사들과 주고 받은 시는 스님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정이 솔솔 넘치는 후덕한 할아버지를 연상케 한다.



◇에이츠

에이츠 詩속 '반야' 들여다보기

서해숙교수 '에이츠, 존재의 완성...' 펴내
에 대한 해설이다. 에이츠의 <탑>의 작품들이 현실적인 실체를 바탕으로 영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나선형의 계단>은 영혼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살현하는 인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자양이병·청동합등 사리장엄구 8종 29점도 판독 6개월 이상 걸려... 스님이 만든 종이 가능성

몽치를 비롯해 청자양이병, 녹색사리병, 청동합 등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8종 29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종이 두루마리와 청자병은 탑신석 1층 윗부분에 각각 가로 33cm, 세로 10cm 크기의 장방형과 직경 22cm 가량의 원통형에 들어 있었으며 청자병에서는 사리 22개를 담은 녹색사리병과 청동합 2점, 수정옥 1점, 목제 장식류 1점, 유리구슬 등이 함께 발견됐다.

예능민속연구소장은 "9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화엄사 석탑내에서 발견됐으므로 9세기 중엽 이전의 유물이 분명하고, 크기와 두께로 볼 때 인쇄물이기 보다는 손으로 불경을 베껴 쓴 사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인 제2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통일신라때의 종이를 제작한 것은 9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화엄사 석탑내에서 발견됐으므로 9세기 중엽 이전의 유물이 분명하고, 크기와 두께로 볼 때 인쇄물이기 보다는 손으로 불경을 베껴 쓴 사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인 제2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방적 사회'가 불교미술 발전 기여

대고구려국보전 2차 학술강연 흥윤식교수등 발표

중앙일보사와 삼성문화재단이 주최한 '대고구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의 제 2차 학술강연회가 지난 28일 삼성생명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려불교미술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흥윤식교수(동국대)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였는가 △불교에 대한 기본개념과 미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방법을 동시에 접근 △고려시대 대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된 불교종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교수는 "고려불교미술의 흐름, 즉 그 역사적 변천은 고려사회가 신라시대의 관념적인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의 불교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고려불교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시대 일반화화를 고려초기·중기·후기·말기로 나뉘며 "고려시대 일반화화의 발전에 대해 강연한 흥윤식교수(한국미술연구소)는 "개국 초기부터 유학적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려시대에는 지식계층이 문사적 한묵(翰墨)풍조와 회화이론

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회화조류의 전개에 중추적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선문화연구원 천혜봉박원 교수는 "고려시대의 인쇄술"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목판인쇄술과 활자인쇄술로 구분할 수 있는 인쇄술은 고려말기에 이르러서 서로 상충적 위치에서 병행적으로 보급, 발전하면서 고려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10만 관람객을 돌파한 '대고구려국보전'은 연일 3천여명의 관람객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의 불심과 기상이 서울을 시발로 해의 6개국 7개도시로 퍼져 나간다. KBS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뮤지컬 '장보고의 꿈'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 KBS홀에서 공연된다(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후 4시·7시 30분, 3일 오후 4시). 김지일씨가 극본을 쓰고 김상열

'장보고의 꿈' 해외 나들이

1-3일 국내공연후 美등 6개국 순회
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안무는 극수호씨가 맡았다. '진혼제' '동어제' '법화원 예불' '정해진 건설' 등을 테마로 이어지는 뮤지컬 '장보고의 꿈'은 장보고의 진취적인 삶과 동포애, 법화원을 세워 동포들의 안락을 희구하는 불심, 해상제국 건설의 꿈과 좌절 등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다. 장보고역에는 중견 탤런트 임동진씨, 그의 스승인 이 사교역에는 김성원씨, 속직 역작역에는 최종원씨가 가담해 극수호씨의 안무에 맞춰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서울공연을 마친 뒤에는 7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미국의 LA·샌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상파울로, 캐나다의 밴쿠버,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문의=762-6194).

재미무용가 이선옥(뉴욕대 부교수)씨가 부산 창작무용연구회(회장 이연미)의 정기발표회에 안무자로 초청받아 '선무가:바리밀타'를 9월6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선무가:바리밀타'는 작년과 올해 파리과 뉴욕에서 선종적인 호평과 관객동원에 성공한 '목리밀'을 바탕으로한 '제2의 바리밀'로서 법배, 선무기법,

고노·깨달음 '좁사위'

이선옥씨 6일 부산공연
결연법, 선화와 작곡가 조셉엘리의 현대음악, 금강송(한국 고유의 불교 무술)을 총동원한 종합예술. 부산창작무용연구회가 처음으로 외국 객원 안무가를 초청, 새로 시도하는 창작무대인 이번 공연에서 이선옥씨는 업으로부터의 고뇌와 깨달음을 좁사위로 보여준다. '연꽃,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한 이선옥씨는 이번 공연에서 '불교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의식적 무용이면서 완전한 창작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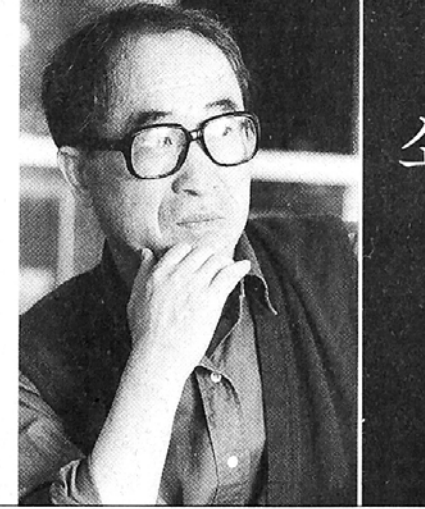
현존 '고려불화' 모두 담는다

국내외 발견 140여점 '집대성' 11월초 발간
고려불화의 현존작품을 모두 담은 도록 '고려시대의 불화'가 나온다. 미술사학자들의 연구단체인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에 의해 11월초에 발간 예정인 '고려시대의 불화'는 도판형, 해설편의 2권으로 국내외에서 발견된 1백40여점을 집대성한다. 특히 도록에는 그동안 존재

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발굴된 일본 대천사(大天寺) '아미타삼존도' 조호 손자사(朝護孫子寺)의 '지장보살도' 지은원(地隱院)의 '지장시왕도' 등 30여점도 포함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화'의 발간 준비와 함께 조선불화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 한국미술연구소는 내년 5월엔 조선불화 1백여점을 수록한 '조선시대의 불화'(가제)도 발간할 예정이다.

창작과비평사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TEL 718-0541~4 FAX 713-2403



소설 禪 1,2 高銀

선의 역사, 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禪小說!

6세기경 페르시아 헬통의 인도승 달마(達磨)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연 이래 6조(祖) 혜능에까지 이어지는 대선사들의 고행에 찬 수행과 득도, 오묘하고 그윽한 그 불립문자의 세계가 대시인 고은 선생의 활달한 필치로 그려집니다. 5호16국시대, 남북조시대 중국의 난세를 배경으로 지배적인 황실 불교에서 벗어나 대승적 입장에서 수행정진에 힘쓰는 수많은 고승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득도행과 비밀리에 행해지는 법통(法統) 승계, 수많은 불교 공인들이 흥미를 더하며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고은 선생께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경지를 불교사상 최초로 장엄한 대하소설로 형상화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고은 선생은 잘 알다시피 불교계의 풍운아요 한국의 대표적 자유인이다. 이제 여기 깨달음의 세계를 뼈를 깎아 붓으로 삼고 괴를 뿔아 먹음 삼은 고행으로써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 소설은 마음의 근본을 비추는 본래면목의 거울이 아닐 수 없다. - 동국대 총장 宋錫球

각권 값 6,500원